

# 유가 100달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 분석>

I. 최근 유가 동향 및 전망 .....	3
II. 유가 100달러 유지 시 수출에 미치는 영향 .....	5
1. 기업규모별 .....	5
2. 산업별 .....	6
III. 손익분기 유가수준 .....	8
1. 기업규모별 .....	8
2. 산업별 .....	9
IV. 결론 및 시사점 .....	11

## < 요약 >

- **중동 지역 소요사태의 단기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단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는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여 유가 상승 리스크에 취약한 경제 구조임
  - ☞ 이에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유효표본 454개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가 100달러 유지 시 국내 기업의 수출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
- **유가 100달러 유지 시 수출기업의 약 3분의 1이 수출 감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26.3%)보다 중소기업(37.2%)이 수출 감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
  - 산업별로 석유화학(43.7%), 섬유(41.5%), 자동차(41.4%) 산업 등이 수출 감소 기업 비중이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선박(72.7%), 기계(62.8%) 산업 등이 수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
  - 선박(9.1%)산업은 수출이 10% 이상 증가, 플랜트(60.0%) 산업, 기계 산업 중 정밀기계(16.7%) 제품은 수출이 5~10% 증가한다고 응답함
- **수출기업의 61.9%가 손익분기점이 유가 100달러 이하에서 결정되어 수출채산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62.5%)이 대기업(59.7%)에 비해 손익분기점이 100달러 이하로 응답한 비중이 높아 유가 100달러 유지 시 중소기업의 손실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철강/비철금속(70.1%), 석유화학(69.0%), 자동차 부품(69.0%), 섬유(63.4%) 산업 등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손익분기점이 유가 100달러 미만으로 응답한 기업 비중이 타 산업 대비 높음
  - 선박(45.5%), 기계(27.7%) 산업은 손익분기점이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
  - 플랜트(40.0%), 전기전자(11.1%), 철강/비철금속(9.0%) 산업은 손익분기점이 100달러 이상에서 형성되는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고유가로 인해 수출 감소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출채산성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원화강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까지 약화되어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어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함**

## I. 최근 유가 동향 및 전망

□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두바이유가 28개월來 최초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221.)한 이후 최근 110달러대까지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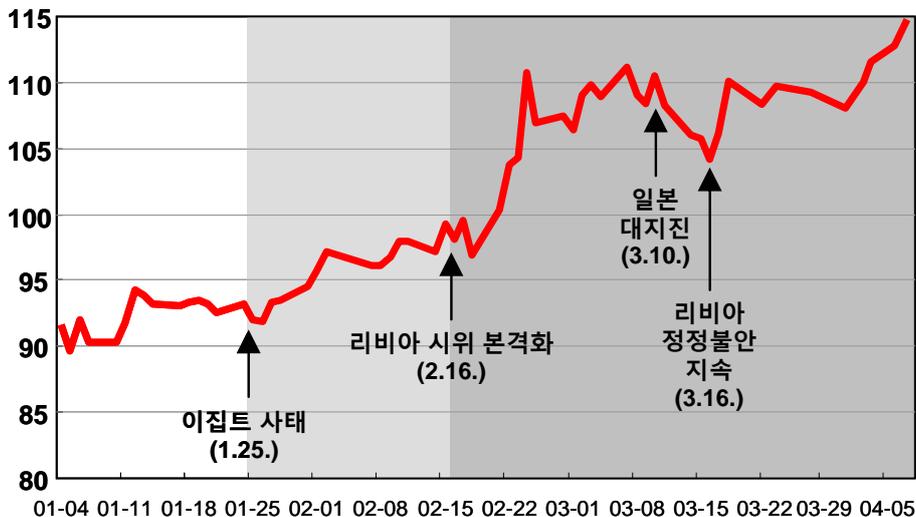
-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반정부 소요사태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심리적인 불안요인이 커지며 두바이유를 중심으로 2월 말 유가가 100달러까지 상승
- 반정부 소요사태가 주요 산유국인 리비아(원유생산비중 2%)로 확산되자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유가가 110달러대까지 급등
  -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유가가 5달러 정도 하락하였으나 연합군이 리비아 공격을 감행하는 등 리비아 사태 장기화 우려로 다시 상승

□ 중동 지역 소요사태의 단기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단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중동 사태 전개 양상별로 4가지 유가 시나리오 제시하며, 시나리오 ③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함
  - ① 중동사태 조기 진정 시 85~95달러 수준으로 안정화 ② 리비아 소요사태 악화 시 120달러로 상승 ③ 알제리, 오만, 예멘으로 확산 시 130~140달러까지 상승 ④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 확산 시 150달러 이상으로 상승
- 다만 원유공급 차질 시 OPEC의 충분한 잉여생산능력으로 즉각 생산이 가능하여 고유가 지속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두바이 유가 동향 >

(단위: \$/배럴)



자료 : KoreaPDS

-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지역 원유 의존도가 84%(2009년 기준)로 매우 높아, 중동발 리스크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로 금번 사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 이에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가 100달러 유지 시 국내 기업의 수출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

**< 설문조사 개요 >**

구 분	내 용
설문조사 대상	국내 수출기업 2000여 개 사
설문조사 진행	(주)엠알씨케이
설문조사 실시 기간	2011. 3. 2.~ 2011. 3. 11.
유효 표본	454개사(대기업 128개사, 중소기업 326개사)
설문조사 항목	유가 100달러 유지 시 수출에 미치는 영향, 손익분기 유가수준

## II. 유가 100달러 유지 시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유가 100달러 유지 시 수출기업의 약 3분의 1이 수출 감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이 10% 이상 감소하는 기업은 7.3%, 수출이 5~10% 감소하는 기업은 27.2%임
- 수출기업의 약 3분의 2 가량의 기업은 수출이 유지되거나 증가함
  - 56.7%는 수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7.7%는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 기업규모별

- 수출 감소의 영향은 중소기업(37.2%)이 대기업(26.3%)보다 큼
  - 유가 상승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수출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에 큰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대기업(62.3%)이 중소기업(54.9%)보다 높음
  - 수출이 증가하는 기업 비중 역시 대기업(9.6%)이 중소기업(7.1%)보다 높음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수출경쟁력이 높아 유가상승의 경우에도 수출을 유지하고, 오히려 수출이 증가하는 기업도 많은 것으로 판단됨

#### < 유가 100달러 유지 시 기업규모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수출 10% 이상 감소	수출 5~10% 감소	큰 영향 없음	수출 5~10% 증가	수출 10% 이상 증가	모름/무응답
전체	7.3%	27.2%	56.7%	5.3%	2.4%	1.1%
대기업	4.4%	21.9%	62.3%	6.1%	3.5%	1.8%
중소기업	8.3%	28.9%	54.9%	5.0%	2.1%	0.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2. 산업별

- 석유화학(43.7%), 섬유(41.5%), 자동차(41.4%) 산업 등은 수출이 감소하는 기업 비중이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관련 기업 중 대기업 비중이 30%로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로 응답한 비중이 높아,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인상 및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가 큰 것으로 판단됨
  - 섬유산업은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비중(87.9%)이 매우 높아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 산업에 포함된 기업 대부분이 부품 제조업체임
    -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은 75%가 중소기업으로 고유가 시 수출 감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자동차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함
- 선박(72.7%), 기계(62.8%) 산업 등이 수출에 가장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선박 및 선박부품 기업은 대기업 비중(45%)이 높은 편인데다가, 고유가에도 선박수요가 줄지 않아 수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기계 산업은 중소기업 비중(92%)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하여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 비중이 62.8%로 매우 높아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계제품 중 정밀기계제품은 수출이 5~10%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한 기업 비중이 50.0%로 높게 나타남
- 선박(9.1%)산업은 수출이 10% 이상 증가하고, 플랜트(60.0%) 산업, 기계 산업 중 정밀기계(16.7%) 제품은 수출이 5~10% 증가함
  - 일부 선박 기업의 경우 고유가에 따른 수주 증가로 선박 수출이 오히려 증가함
    - 유가상승에 따른 심해 지역 유전개발 증가로 인해 심해시추선,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 설비) 등 선박 수요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플랜트 수출 증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중동 오일머니 축적이 동지역의 플랜트 산업 호황으로 연결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중동 정정 불안이 국내 플랜트 기업의 주요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을 비껴가고 있어 플랜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임
  - 또한 고유가에 따른 심해유전개발 붐으로 인해 고정식 해양석유 시추설비, 해양 석유·가스 기지 및 처리시설과 같은 해양플랜트 수요 증가도 일조한 것으로 보임
- 정밀기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5~10%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중(16.7%)이 타 산업대비 높게 나타나 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밀기계 제품 생산 기업은 수출 감소로 응답한 기업 비중 역시 50%로 타 산업대비 높은 편으로, 정밀기계 수출기업 간 편차가 큼

**< 유가 100달러 유지 시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수출 10% 이상 감소	수출 5~10% 감소	큰 영향 없음	수출 5~10% 증가	수출 10% 이상 증가	모름/무응답
<b>전체</b>	<b>7.3%</b>	<b>27.2%</b>	<b>56.7%</b>	<b>5.3%</b>	<b>2.4%</b>	<b>1.1%</b>
석유화학	14.1%	29.6%	46.5%	5.6%	2.8%	1.4%
석유화학	11.4%	30.0%	48.6%	5.7%	2.9%	1.4%
석유제품	66.7%	0.0%	33.3%	0.0%	0.0%	0.0%
철강/비철금속	3.0%	31.3%	52.2%	9.0%	4.5%	0.0%
철강제품	2.0%	32.0%	52.0%	8.0%	6.0%	0.0%
비철금속	5.3%	31.6%	52.6%	10.5%	0.0%	0.0%
전기전자	4.8%	26.2%	64.3%	1.6%	1.6%	1.6%
가정용전자	15.0%	20.0%	60.0%	0.0%	5.0%	0.0%
전자부품	4.1%	27.4%	64.4%	1.4%	1.4%	1.4%
산업용전자	2.4%	31.0%	61.9%	2.4%	0.0%	2.4%
기계	4.3%	21.3%	62.8%	6.4%	5.3%	0.0%
일반기계	4.5%	19.1%	65.2%	5.6%	5.6%	0.0%
정밀기계	0.0%	50.0%	33.3%	16.7%	0.0%	0.0%
자동차	13.8%	27.6%	58.6%	0.0%	0.0%	0.0%
선박	0.0%	0.0%	72.7%	0.0%	9.1%	18.2%
섬유류	12.2%	29.3%	46.3%	9.8%	2.4%	0.0%
플랜트	0.0%	0.0%	40.0%	60.0%	0.0%	0.0%
기타	12.5%	18.8%	68.8%	0.0%	0.0%	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II. 손익분기 유가수준

- 수출기업의 61.9%가 손익분기점이 유가 100달러 이하에서 결정되어 현재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80달러 이하(6.8%), 80~85달러(24.1%)에서 손익분기점이 결정된다고 응답한 기업도 전체 수출기업의 3분의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특히 이 기업들의 경우 고유가에 따른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
- 손익분기점이 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19.6%임
- 5.9%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손익분기점이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에서 형성된다고 응답함

#### 1. 기업규모별

- 손익분기점이 100달러 미만으로 응답한 기업 비중은 중소기업(62.5%)이 대기업(59.7%)보다 높음
  - 85달러 이하로 응답한 기업 비중 역시 중소기업(31.6%)이 대기업(29.0%)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유가 100달러 유지 시 중소기업의 손실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수출 감소 기업 비중도 높게 나타난 바 있어,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채산성<sup>1)</sup> 악화가 심한 것으로 판단됨
- 손익분기점이 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대기업(25.4%)이 중소기업(17.7%)보다 높음
  - 수출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유가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제품가격으로 전가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임
- 손익분기점이 100달러 이상인 기업 비중 역시 대기업(10.5%)이 중소기업(4.5%)에 비해 매우 높음
  - 일부 대기업(6.1%)의 경우 유가가 상승할수록 유리하다고 응답하여 고유가가 호재로 작용함

1) 수출에 있어 수지, 손익을 따져 이익이 나는 정도를 말함.

< 기업규모별 손익분기 유가수준 >

	80달러 이하	배럴당 80-85달러	배럴당 85-90달러	배럴당 90-95달러	배럴당 95~100 달러	배럴당 100~105 달러	상승할 수록 유리	영향이 없음	모름/ 무응답
전체	6.8%	24.1%	14.6%	10.4%	6.0%	2.6%	3.3%	19.6%	12.6%
대기업	7.9%	21.1%	14.0%	8.8%	7.9%	4.4%	6.1%	25.4%	4.4%
중소기업	6.5%	25.1%	14.7%	10.9%	5.3%	2.1%	2.4%	17.7%	15.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 산업별

- **철강/비철금속(70.1%), 석유화학(69.0%), 자동차 부품(69.0%), 섬유(63.4%) 산업은 유가 100달러 미만에서 손익분기점이 형성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타 산업 대비 높아 유가 100달러 유지 시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부품소재 산업이 대부분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유가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분이 크나 비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석유화학, 자동차, 섬유 산업은 수출 감소 기업 비중이 40% 이상 높았던 산업으로, 손익분기점이 100달러 미만에서 결정되는 기업 비중도 높아 유가 100달러 유지 시 수출채산성 악화
- **선박(45.5%), 기계(27.7%) 산업은 손익분기점이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높음**
  - 선박 산업은 대기업 비중이 약 45%로 매우 높아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보임
  - 기계 산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100달러 유지 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기업 비중이 62.8%로 높은데 이어, 손익분기점 역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높아 내실 있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플랜트(40.0%), 전기전자(11.1%), 철강/비철금속(9.0%) 산업은 100달러 이상에서 손익분기점이 형성되는 기업 비중이 타 산업 대비 높음
  - 플랜트 기업 중 유가 100달러 유지 시 수출 증가로 응답한 기업 모두 손익분기점 100달러 이상으로 응답함
    - 유가상승에 따른 수요는 증가하면서 비용증가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전기전자 산업은 앞서 고유가가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6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음
    - 대기업 비중(약 30%)이 높아 수출채산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철강/비철금속 산업은 손익분기점이 100달러 미만과 1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비중이 각각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 기업간 양극화 양상을 보임

< 산업별 손익분기 유가수준 >

	80달러 이하	배럴당 80~85달러	배럴당 85~90달러	배럴당 90~95달러	배럴당 95~100달러	배럴당 100~105달러	상승할 수록 유리	영향이 없음	모름/무응답
<b>전체</b>	<b>6.8%</b>	<b>24.1%</b>	<b>14.6%</b>	<b>10.4%</b>	<b>6.0%</b>	<b>2.6%</b>	<b>3.3%</b>	<b>19.6%</b>	<b>12.6%</b>
석유화학	2.8%	25.4%	22.5%	11.3%	7.0%	1.4%	1.4%	14.1%	14.1%
석유화학	2.9%	25.7%	22.9%	8.6%	7.1%	1.4%	1.4%	15.7%	14.3%
석유제품	0.0%	0.0%	0.0%	66.7%	0.0%	0.0%	0.0%	33.3%	0.0%
철강/비철금속	6.0%	28.4%	23.9%	7.5%	4.5%	3.0%	6.0%	14.9%	6.0%
철강제품	6.0%	24.0%	24.0%	4.0%	6.0%	4.0%	6.0%	18.0%	8.0%
비철금속	5.3%	42.1%	21.1%	15.8%	0.0%	5.3%	5.3%	5.3%	0.0%
전기전자	8.7%	18.3%	9.5%	14.3%	5.6%	7.1%	4.0%	22.2%	10.3%
가정용전자	10.0%	25.0%	15.0%	10.0%	0.0%	10.0%	5.0%	15.0%	10.0%
전자부품	5.5%	16.4%	12.3%	13.7%	9.6%	8.2%	5.5%	21.9%	6.8%
산업용전자	16.7%	19.0%	0.0%	16.7%	0.0%	2.4%	0.0%	26.2%	19.0%
기계	4.3%	28.7%	9.6%	6.4%	5.3%	0.0%	4.3%	27.7%	13.8%
일반기계	4.5%	30.3%	9.0%	5.6%	4.5%	0.0%	4.5%	28.1%	13.5%
정밀기계	0.0%	16.7%	16.7%	16.7%	16.7%	0.0%	0.0%	16.7%	16.7%
자동차	12.1%	22.4%	12.1%	10.3%	12.1%	0.0%	1.7%	15.5%	13.8%
선박	0.0%	9.1%	0.0%	18.2%	0.0%	0.0%	0.0%	45.5%	27.3%
섬유류	0.0%	36.6%	17.1%	7.3%	2.4%	0.0%	2.4%	19.5%	14.6%
플랜트	20.0%	0.0%	0.0%	0.0%	0.0%	0.0%	40.0%	20.0%	20.0%
기타	12.5%	12.5%	31.3%	6.3%	0.0%	0.0%	0.0%	25.0%	12.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V. 결론 및 시사점

- 중동소요 사태에 따른 고유가 지속 시 세계경기 위축과 함께 국내 기업의 수출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유가로 인해 수출 감소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출채산성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임
  - 본 설문조사는 유가 배럴당 100달러 기준으로 실시되었는데 만약 유가가 배럴당 130~140달러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극히 일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 당분간 원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까지 악화되어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
- 유가 130달러를 상회하는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여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한편 석유·가스 자주개발을 확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함

작성 : 책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

확인 : 실장 안상술 (3779-6670)  
ssahn@koreaexim.go.kr